

# 후보 내기도... 안내기도... 민주 '노원병 딜레마' 여야, 이젠 4·24 재보선이다

### 4·24재보선 위기감 고조... 무공천론 확산도

### 세곳 중 한곳도 승리 못할때 내부 동력 고갈

4·24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내 혁신 작업이 별부 성과인 상황에서 서울 노원 병, 충남 부여·청양, 부산 영도 등 세 곳의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지역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노원 병의 경우 '안철수 딜레마'에 빠져 좀처럼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번 재보선 선거에서 단 한 곳에서도 승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의 내부 동력이

고갈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안 전 교수가 출마하는 '노원 병 딜레마'를 잘 풀어내면서 이를 정치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안 전 교수에 견제 입장을 보였던 친노 진영에서 노원 병 '무공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친노 계로 분류되는 김태연 의원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노원 병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결단을 내렸으면 한다"며 "그 결단이 야권이 새롭게 혁신하고 통합과 연대의 가치를 살려나가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당내 비주류 측에서도 안 전 교수와의 장기적 연대 등을 위해 노원 병의 '무공천'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4·24 재보선 선거에서 민주당 단 한 곳이라도 승리를 챙기고 안 전 교수의 야권연대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설부터 후보를 냈다가 새누리당 후보가 승리한다면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는 현실도 '무공천'에 힘을 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노원 병 무공천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명분

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 전 교수가 야권 연대 등을 시사하는 행보나 입장 표명 등에 나서고 민주당이 이에 적극 화답하는 구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위적인 야권 연대가 오히려 후폭풍은 물론 새 정치에 대한 명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 전 교수가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안 전 교수 측은 당장 4월 재보선에서의 후보단일화에 대해서도 "기계적 단일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오히려 안 전 교수가 민주당의 고민을 뒤로 하고 독자 노선을 걸을 것이라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노원 병 공천론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안 전 후보에 기대다가는 민주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원 병 무공천은 인풍(안철수 바람)을 일으켜 결국 민주당이 종속 변수로 끌려가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통합당 당권 주자인 이용섭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의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에서 안철수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민주당의 진로를 결정할 변수"라며 "전반적인 상황은 무공천 흐름이지만 이에 걸 맞는 정치적 명분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노원 병 '안철수 대항마' 새누리 3명 신청

여야가 정부조직개편 협상을 끝내고 본격적인 4·24 재보선 국면으로 전환했다.

이번 재보선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인데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합류로 정치적 의미가 적지 않다. 실제로 선거 결과에 따라 단순한 여야 내부의 역학관계 등으로 정치 지형 자체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8일 4·24 재보선 선거 공천 일정 로드맵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서울 노원 병의 경우 현 당협위원장인 허준영 전 경찰청장과 이성복 예비역 육군중령, 주준희 전 중앙선대위 대외협력특보가 신청을 한 가운데 최자의 '안철수 대항마'를 공천한다는 계획이다.

부산 영도는 단독 신청한 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유력한 상황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으로 이번 선거에서 원내에

진입한다면 차기 당 대표 감으로 꼽히고 있다.

충남 부여·청양에는 이원구 전 충남지사서와 이진석(76) 전 자유선진당 의원을 비롯해 9명이 신청해 공심위가 내부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도 이날 공심위 인선을 마무리하고 공천 작업에 나섰다. 민주당은 현재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은 열세로 분류하고 있고, 노원 병은 안 전 교수의 출마로 후보자 공천 여부마저 불분명한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부산 영도의 경우 김비오 지역위원장이 공천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부여·청양에서는 황인석 전 한국농어촌공사 부 여지사장과 정용환 변호사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원 병은 당내에서 '무공천론'이 확산되고 있으나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내달 8~9일 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

### 5·4 전대 일정 확정...12일 예비경선

민주통합당은 다음달 12일에 예비경선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5·4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일정을 18일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열어 다음달 8일과 9일에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12일에 예비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당 대표에 후보가 4명 이상 등록하면 예비경선을 거쳐 본 경선에 나갈 3명을 뽑고 4명을 뽑는 최고위원에 7명 이상의 후보가 등록하면 예비경선을 거쳐 6명의 후보를 선정한다.

다음달 12일과 13일에 본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치고 5월 초까지 시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도당 대의원대회를 지역별로 열고 이 자리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도 함께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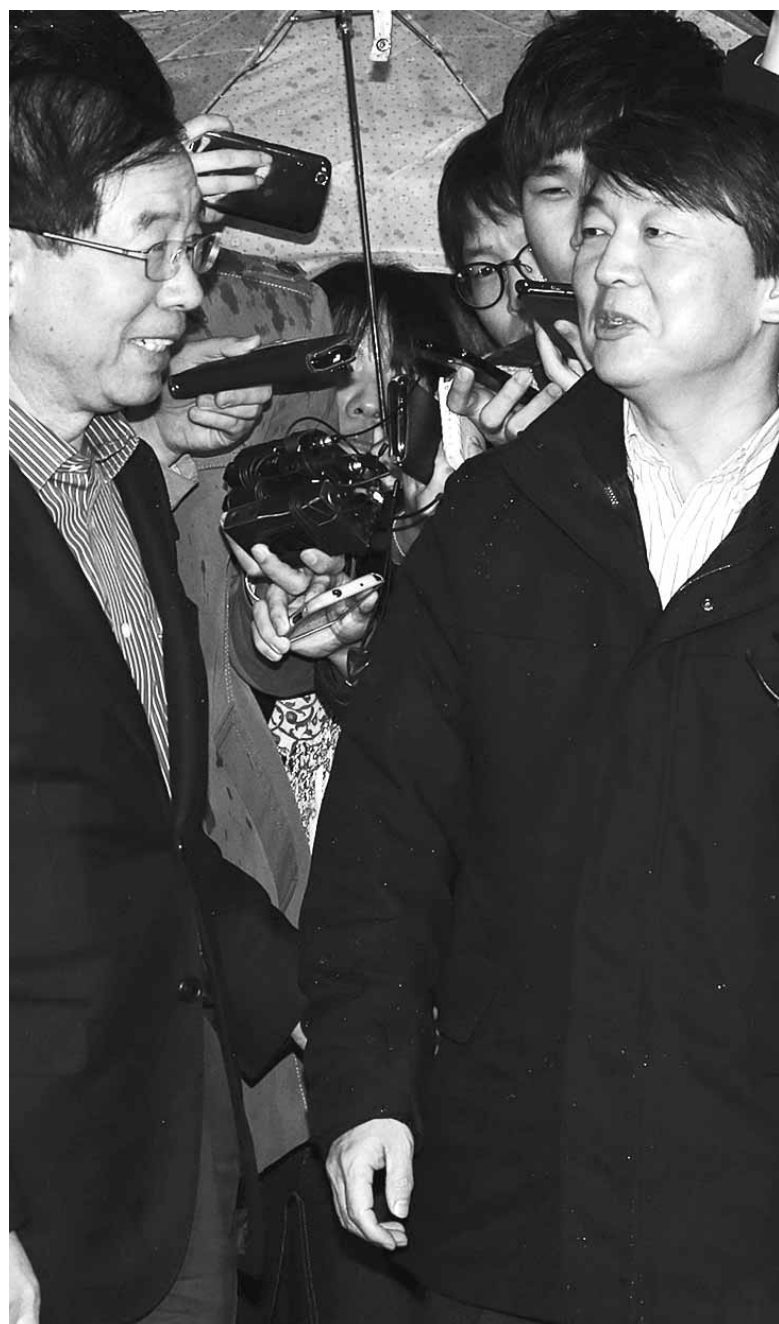
다음 달 23일과 30일에는 모바일 투표가 여의치 않은 권리당원 대상의 우편투표와 재외국민 대상의 이메일 투표가 각각 시작돼 5월 2일까지 진행된다. 권리당원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와 여론조사는 5월 1일부터 이틀간 실시하고 같은 달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마무리한다. 돈 덜 드는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 후보자 기탁금을 예비경선의 경우 500만원, 본경선은 당대표 7000만원, 최고위원 3000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이번 전대와 같은 단일성 집단체 지도부를 뽑았던 가장 최근 선거인 2008년 7월 전대 당시의 60~70% 수준이다.

민주당은 예초 지난 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달 1일부터 5일 사이에 예비경선을 치르는 내용 등을 담은 전대 일정을 확정했으나 당내 사정과 4·24 재보선 등을 고려해 전대 일정을 변경, 이같이 확정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오랜만의 만남 "반갑습니다"

지적 서울 중구 정동 소재 음식점 달개비에서 회동하기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안 전 교수의 지난해 대선 출마 선언 직전인 9월 13일 이후 처음이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와

박원순 서울시장 17일

/연필뉴스

## 안철수-박원순 정치적 연대 '선긋기'

### 박 시장 "민주 당원으로서 당의 입장 견지할 뿐"

박원순 서울시장 17일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와의 회동과 함께 불거진 정치적 연대설에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1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안철수 신당 창당과 관련된 연대설에 대해 "소설이고, 사담이런 게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민주통합당 당원으로서 당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교수측이 회동을 사진 공개

한 것은 선거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해서가 아니겠냐는 질문에는 "오랜만에 한번 뵙는데 범지 말자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안 전 교수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두 분 다 현명해서 잘 해결할 거고 서울시장 보선 때처럼 아름다운 연대, 정치권 전체의 좋은 기운이 살아나는 게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날 회동에 배석한 안 전 교수 측 측후호 의원은 "안 전 교

수가 지난해 대선에 이어 노원병 선거를 경험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했다"면서 "박 시장은 안 전 교수에게 '정치권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고, '지역선거인 만큼 정말 낮은 자세로 주민과 만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4·24 재보선에서 서울 노원병 출마를 선언한 안 전 교수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날 회동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국정원장·금융위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 남재준 "땅 투기 멩세코 한적 없다"

### 신제윤 "금융기관장 교체 할 수도"

국회는 18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와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갖고 도덕성과 업무 능력을 점검했다.

정보통신위원회의 남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남 내정자가 육군참모총장 시절인 2003년 경기 용인의 아파트(164㎡·49평)를 2억 5천만 원에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 내정자는 특히 금융권 공공기관장 교체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의 질문에 "세 정부의 국정철학·전문성 등 두 가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신 내정자는 "잔여 임기가 있어도 필요하다(대통령에게) 교체를 건의하겠느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는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금융기관장 교체 가능성에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우리금융 매각 문제에 대해 "국민주 방식을 빼고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회, 신용회복기금의 전문가들이 자할 의지가 있는지, 고의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닌지 판단할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신 내정자는 특히 금융권 공공기관장 교체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의 질문에 "세 정부의 국정철학·전문성 등 두 가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신 내정자는 "잔여 임기가 있어도 필요하다(대통령에게) 교체를 건의하겠느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는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금융기관장 교체 가능성에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우리금융 매각 문제에 대해 "국민주 방식을 빼고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부동산, 팔리지 않아 고민하십니까?**  
사고 싶은데 마땅한 매물이 없으십니까?

고객님의 고민을  
솔로몬 공인중개사가  
속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주변토지 구함!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시장남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ℰ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영사건리)

**급매매**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현 토지가격  
**450만원 정도**  
**15억**  
대형식당  
교회,부페(가능)  
개인사정으로 급매매  
(월세도가능)

**010-3701-4767**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상가건물◆  
•오치동 대지 330㎡ 건물 793㎡ 월수익 380만원 (추가임대수익(예상) 매대가 7억 원) 1956천 원, 용지 1956천 원

◆상가매매◆  
•신용동 철민2지구 110㎡ 월수익400만 원 매대가 8억 원 (보증금 5천만 원) 4억 원 이등통신포실 임종예정  
•신용동 철민2지구 66㎡ 호반주출입구 앞 아파트 주출입구 위치 대로변 코너건물 핵심상권 매4억 원

**분양**  
•용두동 철민2지구 1100여세대배후상권 주출입구 앞 1층 48㎡ (단지독점형상권) 매5544만원 매대가 2억6천만 원  
•용두동 철민2지구 1100여세대배후상권 주출입구 앞 2층 47㎡ (단지독점형상권) 매당 163만원(7천7백만 원) -2구 좌분양가능

**상가임대**  
•신용동철민2지구 호반주출입구 앞 132㎡ 3층 보증금3000 / 월140만원(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보습학원, 영수학원 등 학원밀집지역(예상구역)  
•신용동철민2지구 호반주출입구 앞 132㎡ 4층 보증금3000 / 월120만원(대건도 학원, 미술학원, 보습학원, 영수학원 등 학원밀집지역(예상구역)

**상가주택매매**  
•신정동 해남2지구 1층점포 2층 투-쓰리 37㎡ 3층복층인질 월수익550만 매7933천 원  
•월전동 흥16개 1층점포, 월수익650만 매695만 원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010-8611-9009**  
(건축·분양·대행·시행·상담)

**경매비법**

▶배우면서 투자가능  
▶실제 낙찰사례 스테디  
▶1인1물건 추천  
▶주1회, 3개월 완성  
▶수강료 550만원

(주)오천정매 H.010-3605-50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공증문서    ■대여금  
■법원판결문    ■운송료  
■각종채권    ■구상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채무자 신용조사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